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주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23-200-465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다해) 연중 제20주일

입당 : 희망의 순례자들 파견 : 16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시편 40, 2, 3, 4, 18)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 Lord, come to my aid! (Psalm 40:2, 3, 4, 18)

- I have waited, waited for the LORD, and he stooped toward me. ◎
- The LORD heard my cry. He drew me out of the pit of destruction, out of the mud of the swamp; he set my feet upon a crag; he made firm my steps. ◎
- And he put a new song into my mouth, a hymn to our God. Many shall look on in awe and trust in the LORD. ◎
- Though I am afflicted and poor, yet the LORD thinks of me. You are my help and my deliverer; O my God, hold not back! ◎

하느님 이름 (3)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언어가 더는 사물의 본질과 통하고 영혼과 사물이 만나는 길이 되어주지 못하게 되었다.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향수마저도 없어져 동전을 헤아리는 기계처럼 “말 돈”을 요란하게 요리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가끔 한번씩 놀라기는 한다. 그렇게 되어버린 말에서도 갑자기 무언가가 원천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처럼 우리를 부르는 수가 있다. 사물의 열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다. 때로는 종이에 씌어진 낱말을 보고 있노라면 까만 글자에서 무엇이 반짝하는 수도 있다. “이름”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다. 거기 비친 것은 사물의 본질이고 우리 영혼의 응답이다. 그럴때면 당초에 말이 태어나고 영혼이 사물의 본체를 만나던 저 원초적 체험을 다시 맛본다. 새로운 조물을 놀라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서 우러나오는 힘으로 이름을 지어 그것을 정신으로 파악하던 체험을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넓이와 깊이를 되찾을 때면 말은 다시금 하느님이 사람에게 시키셨던 첫 작품이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은 바로 또 타락하고 말고 돈 세는 기계는 다시 요란하게 돌아간다.

혹시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타난 적이 내게도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다보면 구약의 신도들이 하느님 이름을 도무지 부르지조차 앓았던 뜻이 이해가 간다. 그들은 대신 “주님”이라는 이름을 썼다. 그것은 유대족의 특별한 간선을 담은 이름이기 때문이다.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느님의 현실과 하느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하느님의 크고 높으심과 두려우심을 그들은 두드러지게 느끼며 살았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당신 이름을 밝히셨다. “있는 자, 이것이 내 이름이니라” (나로다, 내가 그로다). 다른 어떤 존재도 필요치 않은, 스스로 있으면서 모든 존재와 모든 힘을 총괄하는 “존재자”라고 하셨다.

▶ 2차 헌금 안내

이번 주일 미사 중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은 'The Catholic Relief Services'를 위해 사용되며
LA 교구를 통해 전달됩니다.

▶ 반장 월례 모임

일시 : 8월 24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성전

▶ 요셉회 모임

일시 : 8월 24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25-26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안내

등록기간 : 8월 3일(주일) - 17일(주일)
등록시간 : 오전 9시 30분 가족미사 후 - 오전 11시
등록장소 : 주일학교 교무실 (직접 등록만 가능)
등록요건 : 성당에 등록된 신자의 자녀
꾸준한 미사참석, 학부모 주일학교 봉사
* 개학일 : 9월 7일(주일)
문의 : 교장 송현지 레이첼 ☎ 310-658-4489

▶ 34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일시 : 10월 18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입장티켓 : \$20 (본당 사무실에 비치)
도시락(\$15)은 신청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티켓 구입시 주문가능합니다.
문의 : 성령기도회장 이인석 비오 ☎ 213-258-8665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예비자 교리안내

대상 : 예비신자
세례식 : 2026년 4월 4일(토)
첫 교리 시작일 : 9월 4일(목), 오후 7시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문의 : 전교수녀 ☎ 213-804-9151

▶ 지붕공사 안내

사제관 지붕, 성전 지붕, 교리실 건물 지붕 공사가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차장에
Trash Bin(공사용 쓰레기통)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일정 : 2025년 7월 21일(월) - 8월 25일(월)
문의 : 사무실

▶ 25-26학년도 한국학교 개학안내

개학일 : 8월 23일(토), 오후 2시 - 5시
등록 : 103skcccks@gmail.com (이메일접수)
문의 : 교장 이정님 안나 ☎ 310-780-0832

▶ 버닝 램프 (영어권 18-39세) 기도모임

일시 : 매주 금 7:00pm - 8:30pm, 토 10:00am - 11:30am
* 8월 22일, 23일 개강 / 언제든지 참여 가능
신청 : tinyurl.com/lamplight
문의 : Sr. Clara Choi ☎ 714-494-5375

우리들의 정성

교 무 금	\$ 6,450.00
주일헌금	\$ 2,635.00
감사헌금	\$ 100.00
장례미사	\$ 200.00
합 계	\$ 9,385.00

강영미	구명선	권오상	김권일	김기민	김민석	김옥희
김원호	남명자	노영자	박건양	박명자	손준호	송순자
신성주	신순철	신희정	오강남	오수인	유중수	이근태
이미예	이성구	이일길	이재용	이주창	임종택	장경숙
전동훈	최성은	최승진	최영신	맹승우	유영숙	